

## 한국간호연구의 동향: 대한간호학회지 및 회원 학회지(창간호부터 2010년까지)에 게재된 논문의 연구동향 분석

최명애<sup>1</sup> · 김남초<sup>2</sup> · 김경미<sup>3</sup> · 김성재<sup>1</sup> · 박경숙<sup>4</sup> · 변영순<sup>5</sup> · 신성례<sup>6</sup> · 양수<sup>2</sup> · 이경숙<sup>7</sup> · 이은현<sup>8</sup> · 이인숙<sup>1</sup> · 이태화<sup>9</sup> · 조명옥<sup>10</sup> · 김진학<sup>11</sup>

<sup>1</sup>서울대학교 간호대학, <sup>2</sup>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sup>3</sup>세명대학교 간호학과, <sup>4</sup>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sup>5</sup>이화여자대학교 간호과학부, <sup>6</sup>삼육대학교 간호학과, <sup>7</sup>강릉원주대학교 원주캠퍼스 간호학과, <sup>8</sup>아주대학교 보건대학원, <sup>9</sup>연세대학교 간호대학, <sup>10</sup>동의대학교 간호학과, <sup>11</sup>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Trends in Nursing Research in Korea: Research Trends for Studies Published from the Inaugural Issue to 2010 i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nd the Journals Published by Member Societies under Korean Academy of Nursing Science

Choe, Myoung-Ae<sup>1</sup> · Kim, Nam Cho<sup>2</sup> · Kim, Kyung Mi<sup>3</sup> · Kim, Sung Jae<sup>1</sup> · Park, Kyung Sook<sup>4</sup> · Byeon, Young Soon<sup>5</sup> · Shin, Sung Rae<sup>6</sup> · Yang, Soo<sup>2</sup> · Lee, Kyung Sook<sup>7</sup> · Lee, Eun Hyun<sup>8</sup> · Lee, In Sook<sup>1</sup> · Lee, Tae Wha<sup>9</sup> · Cho, Myung Ok<sup>10</sup> · Kim, Jin Hak<sup>11</sup>

<sup>1</sup>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sup>2</sup>College of Nursing,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sup>3</sup>Department of Nursing, Semyung University, Jecheon; <sup>4</sup>Red Cross College of Nursing, Chung-Ang University, Seoul

<sup>5</sup>Division of Nursing Science, College of Health Science,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sup>6</sup>Department of Nursing, Sahmyook University, Seoul

<sup>7</sup>Department of Nursing, Gangneung Wonju National University, Wonju; <sup>8</sup>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Ajou University, Suwon

<sup>9</sup>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Seoul; <sup>10</sup>Department of Nursing, Donggeui University, Busan

<sup>11</sup>Korea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Health & Welfare, Osong,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rends for studie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nd journals published by member societies from inaugural issues to 2010. **Methods:** A total of 6890 studies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Results:** Quantitative studies accounted for 83.6% while qualitative studies accounted for 14.4%. Most frequently used research designs were quasi-experimental (91.1%) for experimental research and survey (85.2%) for non-experimental research. Most frequent study participants were healthy people (35.8%), most frequent nursing interventions, nursing skills (53.5%), and 39.8% used knowledge, attitude and behavior outcomes for dependent variables. Most frequently used keyword was elderly. Survey studies decreased from 1991 to 2010 by approximately 50%, while qualitative studies increased by about 20%. True experimental research (1.2%) showed no significant changes. Studies focusing on healthy populations increased from 2001-2005 (37.5%) to 2006-2010 (41.0%). From 1970 to 2010, studies using questionnaire accounted for over 50% whereas physiological measurement, approximately 5% only. Experimental studies using nursing skill interventions increased from 1970-1980 (30.4%) to 2006-2010 (64.0%). No significant changes were noted in studies using knowledge, attitude and behavior (39.9%) as dependent variables. **Conclusion:** The results suggest that further expansion of true experimental, qualitative studies and physiological measurements are needed.

**Key words:** Korea, Nursing research, Trends

주요어: 한국, 간호연구, 동향

\*본 연구는 2011년 한국간호과학회 정책연구비로 수행되었음.

\*This research was funded by the Korean Society of Nursing Science in 2011.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Choe, Myoung-Ae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23 Yeongseon-dong, Jongno-gu, Seoul 110-799, Korea

Tel: +82-2-917-1488 Fax: +82-2-765-4103 E-mail: machoe@snu.ac.kr

Received: May 9, 2014 Revised: May 27, 2014 Accepted: August 13, 2014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Derivs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d/4.0>)

If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and retained without any modification or reproduction, it can be used and re-distributed in any format and medium.

##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연구는 새로운 지식을 축적하고 기존의 지식을 검증하며 학문의 발달은 해당 학문 지식체의 축적으로 이루어진다. 간호학의 지식체의 생성 및 축적은 연구수행을 통해 이루어지며, 간호학의 독특성을 반영한다[1]. 간호전문직에 있어서 연구는 기본적인 과학적 지식체를 개발하고 정련하며 확대시키는데 필수적이며 이러한 지식체의 발달은 간호를 전문직으로 성장시키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2].

국내의 간호연구 발전계기는 1955년의 대학과정인가로 시작되었으며 1960년의 석사학위 과정 개설, 1978년 간호계 박사학위과정 신설은 국내 간호연구를 발전하게 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또한, 1970년대 초반부터 대학과정에서 간호연구과목이 개설되었고 이것이 간호연구 발전의 계기가 되었으며, 국내에서 연구논문이 발표되기 시작한 것은 1962년부터이며 대한간호에 연구논문이 최초로 발표되었다.

국내 간호과학 분야의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대한간호학회의 창간과 함께한다. 1970년 대한간호학회가 발족되면서(2005년에 한국간호과학회로 개칭) 대한간호학회가 1970년에 한국 최초의 간호학술지로 창간되었고(2008년 10월호부터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JKAN]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이후 대한간호학회 산하 회원 학회들이 창립되면서 회원 학회들이 발간되기 시작하였다. 회원 학회지 중 성인간호학회지와 지역사회간호학회지가 1989년에 창간되어 회원 학회지 중 가장 먼저 발간되었고, 이후 모자간호학회지(현 여성건강간호학회지의 명칭 변경 전 학회지)가 1991년에 발간되었고, 이후 정신간호학회지 1992년, 기본간호학회지가 1994년, 아동간호학회지와 간호행정학회지가 1995년 발간되었으며, 1999년 대한기초간호자연과학회지가 발간되었다. 이들 회원 학회지들은 대한간호학회지와 함께 각 해당분야의 국내 간호과학발전의 교두보로서 중차대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대한간호학회가 2001년에 한국학술진흥재단, 2003년에는 Index Medicus, 2004년 Medline, Scopus 등재학술지로 우수성을 인정 받았고, 2008년에는 SSCI (Social Science Citation Index), SCI-E (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에도 등재되는 등 우수한 국제학술지로서 입지를 굳히고 있다. 성인간호학회지가 2004년에 학술진흥재단에 등재된 이후 나머지 회원 학회지들도 학술진흥재단에 등재되었으며, 2009년에 여성건강간호학회지가 CINAHL (Cumulative Index to Nursing and Allied Health)에 등재된 이후 2011년에 대한간호학회지, 성인간호학회지, 2012년 기본간호학회지, 간호행정학회지, 아동간호학회지, 기초간호자연과학회지(2010년에 명칭 변경) 등이 등재되었고 성인간호학회지가 Scopus에 등재되어 국내외적으로

우수한 전문학술지로 평가받고 있다.

국내 간호연구동향은 대한간호학회지와 회원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대한간호학회지 연구동향은 대한간호학회지 창간호에서 1999년도까지[3], 2004년에서 2006년[4], 2007년에서 2008년까지[5]의 논문을 분석하여 보고하였고 기본간호학회지의 연구동향은 기본간호학회지 1994년에서 2000년까지 게재된 논문을 분석하고[6] 2001년에서 2007년까지의 논문 분석기를 통해 발표하였다. 성인간호학회지의 연구동향을 1989년에서 2000년[8], 2004년에서 2006년[9]까지 성인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분석과 1989년에서 2011년까지 성인간호학회지 양적 연구의 동향분석[10]을 통해 보고하였다. 정신간호학회지의 연구동향은 1992년에서 2000년까지의 논문분석[11]을 통해, 여성건강간호학회지는 2004년에서 2006년까지의 논문분석[12], 지역사회간호학회지는 1989년 이후 2000년까지의 논문분석[13], 아동간호학회지는 2005년에서 2009년까지의 논문분석[14], 대한기초간호자연과학회지는 1999년부터 2010년까지의 논문 분석[15]을 통해 각 학회지의 연구동향을 발표하였다.

이들 연구동향분석은 학술지의 특성에 따라 분석내용이 다양하였는데 대부분의 학술지에서 공통적으로 연구 대상, 연구 설계, 자료 수집 방법을 분석하였고 일부학회지에서는 이론적 기틀, 주연구자 특성, 통계적 분석 방법, 연구 도구의 종류를 분석하였으며 최근에는 자료 수집 시 윤리적 측면 고려, 주요어, 주요개념, 근거 등급 등을 분석하였다.

이들 논문 분석 결과는 학회지별로 연도별로 제한된 기간의 연구동향을 제시하고 있어 한국 간호연구동향 전체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분석항목이 공통되는 것도 있지만 학회지 특성에 따라 다양하여 한국간호연구 동향 전체를 확인하기에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동일한 분석항목을 이용하여 대한간호학회지와 회원 학회지 창간호부터 2010년까지 게재된 논문 전수의 분석을 통해 한국 간호연구의 동향을 파악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2000년 이후 논문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초창기 연 1회 발간하던 학회지들이 대한간호학회지가 연 7-8회, 지역사회, 성인, 여성건강, 정신, 기본, 간호행정, 아동 간호학회지들이 연 4회, 기초간호자연과학회지가 연 3회로 중간하고 있고 SCI-E, SSCI에 등재된 대한간호학회지는 impact factor를 증가시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회원 학회지들은 SCI, SSCI에 등재시키려고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1970년 이후 40년에 걸쳐 축적된 한국의 간호 지식체의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후 한국의 간호 지식체의 생성 방향을 조망해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는 대한간호학회지 및 회원 학회지의 창간호부터 2010년까지 게재된 논문들을 분석하여 한국 간호연구동향 전체를 파악하고 연구 동향을 시기별로 고찰하여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한국간호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한간호학회지와(창간연도순) 성인간호학회지, 지역사회간호학회지, 여성건강간호학회지, 정신간호학회지, 기본간호학회지, 간호행정학회지, 아동간호학회지, 기초간호자연과학회지의 창간호에서 2010년까지 게재되었던 논문들을 연구자의 특성, 연구 설계, 연구 대상, 자료 수집 방법, 실험 연구에서 간호중재의 종류 및 종속변수, 연구의 윤리적 측면 고려, 주요어에 대해 조사하여 연구동향을 전체적으로 분석하고 시기별 변화를 분석하여 국내 간호연구의 흐름을 확인함으로써 앞으로의 한국간호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 3. 용어 정의: 회원 학회지

한국간호과학회 산하(창립연도순) 성인간호학회, 지역사회간호학회, 여성건강간호학회, 정신간호학회, 간호행정학회, 아동간호학회, 기본간호학회, 기초간호학회(대한기초간호자연과학회가 2013년에 기초간호학회로 개칭)에서 발간하는 학회지를 의미한다.

## 연구 방법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대한간호학회지와 회원 학회지에 창간호부터 2010년 말까지 게재된 논문 전수를 분석하여 한국간호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 2. 연구 대상

연구 분석 대상으로 이용한 논문은 '대한간호학회지' 1970년 1호부터 2010년 6호까지 게재된 논문 1,873편, 성인간호학회지는 1989년 1호부터 2010년 6호까지 944편, 지역사회간호학회지는 1989년 1호부터 2010년 4호까지의 1,087편, 여성건강간호학회지(1991년부터 1994년까지는 모자간호학회지, 이후 1997년까지는 모성간호학회지, 1998년 이후 여성건강간호학회지)는 1991년 1호부터 2010년 4호까지 총 585편, 정신간호학회지는 1992년 1호부터 2010년 4호까지의 649편, 기본간호학회지 1994년 1호부터 2010년 3호까지의 471편, 간호행정학회지 1995년 1호부터 2010년 4호까지의 592편, 아동간호학회지는 1995년 1호부터 2010년 4호까지의 511편, 기초간호자연과학

회지 1999년 1호부터 2010년 3호까지의 178편을 포함해서 총 6,890편이 분석 대상이었다.

## 3. 연구동향 분석 도구

본 연구에서 대상논문들의 분석에 사용한 분석도구는 '임상간호연구' 학술지 게재논문(1995-2008)의 연구동향분석에서 제시하였던 분석기준을 기본 틀로 하여 작성한 분석도구[16]에 주요어를 추가하여 사용하였다. 분석도구에 포함된 항목은 연구자의 특성, 연구 설계, 연구 대상, 자료 수집 방법, 윤리적 측면, 실험 연구의 간호중재 및 종속변수, 주요어로 구성되었으며 분석도구의 각 항목별 세부 내용 및 작성근거는 선행 연구[16]를 참조하였다.

자료 수집 방법의 범주는 선행 연구[16]를 참조하였고 범주 분류 중 설문지, 면담, 자가보고(self-report)는 선행문헌[17]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설문지는 연구자가 준비한 설문지의 질문에 답을 기입하게 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며 면담은 구두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연구 대상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고, 자가보고(self-report)는 연구 대상자를 직접 모니터 할 수 없을 때 대상자들이 직접 작성하게 하여(예를 들어 수유량, 간호활동시간, 대상자의 느낌 등)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실험 연구에 사용된 간호중재와 간호중재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된 종속변수는 선행 연구[16]와 동일하게 범주화하여 구분하였다. 간호중재는 간호기술 영역, 건강교육 영역, 간호행정 영역, 심리·사회적 지지 영역, 정신교육 영역, 대체요법 영역, 기타 영역 등 7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간호기술(nursing skills) 영역에는 대상자에게 행하는 다양한 간호기술의 방법에 대한 중재, 건강교육(health education) 영역에는 예방교육 및 건강증진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중재, 간호행정(nursing administration) 영역에는 인력 배치 및 현황 등 병원 시스템에 관한 중재, 심리·사회적 지지(psychosocial support) 영역에는 주장훈련, 스트레스 및 불안 경감에 관한 중재, 정신교육(psycho-education) 영역에는 정신질환자에게 제공하는 교육에 관한 중재, 대체요법(alternative therapy) 영역에는 마사지, 음악요법, 단전호흡 및 지압에 관한 중재, 기타 영역에는 학습 경험 및 기타 환경적 중재 등이 포함되었다.

종속변수는 임상결과 영역, 기능 영역, 인지 영역, 재정 영역, 지식·태도·행동 영역, 정서 영역, 기타 등 7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임상결과(clinical end points) 영역에는 신체적 증상, 활력징후, 생리적 반응, 통증 등의 변수가 포함되고 기능(functional status) 영역에는 일상생활동작(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도구적 일상생활동작(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IADL]) 등을 포함한 변수, 인지(perceptual outcomes) 영역에는 환자 만족, 안위 등에 대한 변수, 재정

(financial outcomes) 영역에는 마케팅, 간호원가 및 비용-효율성 평가를 위한 변수, 지식·태도·행동(knowledge, attitude, behavior) 영역에는 대상자의 지식, 태도, 행동에 대한 변수, 정서(emotion) 영역에는 불안, 우울 등의 변수, 기타 영역에는 그 외의 변수가 포함되었다.

#### 4. 자료 수집 방법

대한간호학회지는 창간호부터 2000년까지는 한국간호과학회가 소장하고 있는 학회지를 이용하였고, 2000년대 이후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논문 전수를 수집하였으며 회원 학회지는 각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논문을 수집하였다. 분석 대상 논문을 출판된 학회지와 온라인 검색을 통해 확인한 후 분석도구에 맞추어 분류하여 정리한 표를 일차적으로 만들었고 정리된 자료들을 재확인하면서 이차적으로 Excel program에 입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미비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확인 및 수정함으로써 자료 수집을 완성하였다. 연구 대상 중 일반인과 환자는 선행 연구[18]를 토대로 연령에 따라 영유아(0-2세), 학령전기(3-5세), 학령기(6-11세), 청소년기(12-17세), 성년기(18세 이상), 장년기(45세 이상), 노년기(65세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11년 5월부터 2013년 1월까지였다.

####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논문별로 엑셀에 입력한 후 SPSS-Win Version 14 (Chicago, IL)를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국내 연구동향 전체를 파악하기 위해 논문 전수 총 6,890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시기별 변화를 보기위해 1970년에서 1980년까지, 이후 1981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단위로 구분하였다. 대한간호학회지가 1970년에 창간호가 발간되어 1988년까지 유일한 학회지이었으므로 1970년에서 1980년까지 10년간의 변화를 보기위해 1970년에서 1980년까지로, 1981년 이후 2010년까지 5년 단위로(1981-1985, 1986-1990, 1991-1995, 1996-2000, 2001-2005, 2006-2010)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주요어는 국내 간호연구에서 주요어를 논문에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 발표된 연구논문에서 사용한 주요어를 빈도에 따라 10위까지 분석하였으며, 주요어의 시기별 변화는 2000년까지, 2001년에서 2005년, 2006년에서 2010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 연구 결과

#### 1. 논문 수

1970년에서 2010년까지 전체 논문 수는 6,890편이었으며 대한간

호학회지가 전체 6,890편 중 1,873편(27.2%)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087편(15.8%), 성인간호학회지 944편(13.7%) 순으로 많았다. 시기별로 1991년부터 2010년까지 전체 논문 수와 모든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였다. 지역사회논문 수가 1986년에서 1990년 사이에 338편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지역사회간호학회지가 1989년에 창간되면서 지역사회분야에 해당되는 보건소간호, 학교간호, 산업간호 분야의 논문이나 학위논문 중에서 학회지에 게재되지 않은 논문을 모두 포함시켜 301편을 1990년 지역사회간호학회지에 초록 형태로 일괄 게재하였기 때문이다.

#### 2. 연구자의 특성

##### 1) 연구자 수

전체 논문 6,890편 중 연구자의 수는 2명인 경우가 1,468편(21.3%)으로 가장 많았고, 단독인 경우는 1,165편으로 16.9%였다. 연구자 수가 2명에서 5명의 논문 수가 57.4%였으며, 연구자 수가 5명인 공동연구의 논문 수가 1986년부터 2010년까지 시기별로 증가하였다.

##### 2) 제1저자의 직종

전체논문 6,890편 중 제1저자의 직종은 교수가 5,347편(77.6%)으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고, 임상간호사는 1,219편(17.7%)이었으며 연구직 99편(1.5%), 대학원생 110편(1.6%)으로 나타났다. 시기별로 볼 때 모든 시기에서 교수가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 3. 연구 설계

연구 설계를 보면 전체 연구에서 양적 연구는 6,890편 중 5,756편(83.6%)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질적 연구는 994편(14.4%)이었으며 triangulation이 9편(0.2%)이었다. 양적 연구 5,756편(83.6%) 중에서 실험 연구는 1,422편(20.6%), 비실험 연구는 4,334편(63.0%)으로 과반수를 나타냈고 비실험 연구 중에서 조사 연구 3,710편(전체 연구의 53.9%, 비실험 연구 중 85.2%)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실험 연구에서는 유사실험 연구가 1,296편(전체 연구의 18.8%, 실험 연구 중 91.1%)로 가장 많았고, 순수실험 연구 82편(1.2%), 원시실험 연구 44편(0.6%) 순으로 나타났다.

시기별로 보면 실험 연구와 유사실험 연구는 연도별로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비실험 연구 중 조사 연구는 1991년 이후부터 50% 내외로 감소하였고 이 기간 중 질적 연구가 20% 내외로 증가하였다(Table 1).

Table 1. Research Design

(N=6,890)

Variables	Categories	Total	1970-1980	1981-1985	1986-1990	1991-1995	1996-2000	2001-2005	2006-2010		
		n (%)	n (%)	n (%)	n (%)	n (%)	n (%)	n (%)	n (%)		
Quantitative research	Experimental design	True experimental design	82 (1.2)	3 (1.8)	0 (0.0)	11 (2.4)	13 (2.6)	19 (1.3)	9 (0.4)	27 (1.2)	
		Quasi-experimental design	1,296 (18.8)	20 (11.9)	17 (24.6)	28 (6.1)	80 (15.8)	228 (15.2)	422 (20.8)	501 (23.1)	
		Pre-experimental design	44 (0.6)	0 (0.0)	0 (0.0)	0 (0.0)	0 (0.0)	13 (0.9)	15 (0.7)	16 (0.7)	
		Subtotal	1,422 (20.6)	23 (13.7)	17 (24.6)	39 (8.5)	93 (18.4)	260 (17.4)	446 (21.9)	544 (25.0)	
	Non-experimental design	Meta analysis	19 (0.3)	0 (0.0)	0 (0.0)	0 (0.0)	1 (0.2)	6 (0.4)	7 (0.3)	5 (0.2)	
		Systemic literature review	22 (0.3)	0 (0.0)	0 (0.0)	0 (0.0)	2 (0.4)	3 (0.2)	11 (0.5)	6 (0.3)	
		Case comparison	10 (0.1)	0 (0.0)	0 (0.0)	0 (0.0)	2 (0.4)	0 (0.0)	2 (0.1)	6 (0.3)	
		Cohort design	5 (0.1)	0 (0.0)	0 (0.0)	0 (0.0)	0 (0.0)	0 (0.0)	3 (0.2)	2 (0.1)	
		Survey	3,710 (53.9)	127 (75.6)	49 (71.0)	387 (84.1)	242 (47.9)	730 (48.8)	970 (47.9)	1,205 (55.6)	
		Literature review	86 (1.2)	9 (5.4)	0 (0.0)	7 (1.5)	14 (2.8)	19 (1.3)	16 (0.8)	21 (1.0)	
		Methodological research	249 (3.6)	0 (0.0)	0 (0.0)	0 (0.0)	5 (1.0)	84 (5.6)	91 (4.5)	69 (3.2)	
		Q methodology	75 (1.1)	0 (0.0)	0 (0.0)	0 (0.0)	6 (1.2)	21 (1.4)	31 (1.5)	17 (0.8)	
		Case study	38 (0.6)	3 (1.8)	0 (0.0)	2 (0.4)	10 (2.0)	12 (0.8)	4 (0.2)	7 (0.3)	
		Factor analysis	117 (1.7)	1 (0.6)	1 (1.5)	21 (4.6)	6 (1.2)	31 (2.1)	36 (1.8)	21 (1.0)	
		System dynamic research	3 (0.1)	0 (0.0)	0 (0.0)	0 (0.0)	1 (0.2)	0 (0.1)	1 (0.1)	1 (0.1)	
		Subtotal	4,334 (63.0)	140 (83.4)	50 (72.5)	417 (90.6)	289 (57.3)	906 (60.7)	1,172 (57.9)	1,360 (62.9)	
		Total	5,756 (83.6)	163 (97.1)	67 (97.1)	456 (99.1)	382 (75.7)	1,166 (78.1)	1,618 (79.8)	1,904 (87.9)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157 (2.3)	0 (0.0)	0 (0.0)	0 (0.0)	17 (3.4)	41 (2.7)	50 (2.5)	49 (2.3)
			Phenomenological research	343 (4.9)	0 (0.0)	0 (0.0)	0 (0.0)	44 (8.7)	113 (7.5)	116 (5.7)	70 (3.2)
Narrative research	461 (6.7)		0 (0.0)	0 (0.0)	0 (0.0)	25 (4.9)	139 (9.3)	198 (9.8)	99 (4.6)		
Ethnography research	22 (0.3)		0 (0.0)	0 (0.0)	0 (0.0)	12 (2.4)	4 (0.3)	2 (0.1)	4 (0.2)		
Historical research	11 (0.2)		0 (0.0)	0 (0.0)	0 (0.0)	1 (0.2)	9 (0.6)	0 (0.0)	1 (0.1)		
Total	994 (14.4)		0 (0.0)	0 (0.0)	0 (0.0)	99 (19.6)	306 (20.4)	366 (18.1)	223 (10.4)		
Triangulation		9 (0.2)	0 (0.0)	0 (0.0)	0 (0.0)	1 (0.2)	1 (0.1)	4 (0.2)	3 (0.1)		
Others		131 (1.8)	5 (2.9)	2 (2.9)	4 (0.9)	23 (4.5)	23 (1.4)	37 (1.9)	3 (1.6)		
Total		6,890 (100.0)	168 (100.0)	69 (100.0)	460 (100.0)	505 (100.0)	1,496 (100.0)	2,025 (100.0)	2,167 (100.0)		

4. 연구 대상

전체논문 6,890편 중 건강한 일반인이 2,465편(35.8%)으로 가장 많았고, 환자가 1,628편(23.6%)이었다. 일반인과 환자 중에서 성년기를 연구 대상으로 한 논문이 각각 1,074편(15.6%), 1,216편(17.6%)으로 가장 많았고, 노년기 환자를 연구 대상으로 한 논문은 139편(2.0%)이었다.

시기별 변화를 보면 건강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2001년 이후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환자를 연구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연도별로 큰 변화가 없었다. 건강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2001년 이후부터 현저하게 증가하였고, 건강한 장년기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1996년 이후부터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쥐, 세포, 미생물 등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1986년 이후 발표되었고 1986년에서 1990년에 1편에서 2010년에는 20편으로 증가하였다 (Table 2).

5. 자료 수집 방법

자료 수집 방법은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논문 총 6,890

편 중 설문지가 4,641편(67.4%)으로 가장 많았고 면담 664편(9.6%), 문헌 612편(8.9%), 생리적 측정 325편(4.7%), 관찰법 211편(3.1%), 통계자료 162편(2.3%), 의무기록 117편(1.7%), 자가보고 65편(0.9%), 세균배양 34편(0.5%), Q방법론 26편(0.4%), 인터넷 11편(0.2%)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자료 수집 방법에는 신문과 영상매체를 이용한 방법이 있었다.

시기별 변화를 보면 설문지를 이용한 연구가 1970년에서 2010년까지 과반수이상을 나타냈고 연도별로 차이가 없었다. 생리적 측정을 이용한 연구의 비율도 연도별로 변화가 없었고 인터넷을 이용한 연구는 극히 소수이지만 1996년 이후부터 발표되었다.

6. 윤리적 측면 고려

윤리적 측면에 대한 고려를 분석한 결과 기관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를 통과한 경우가 6,890편 중 157편 (2.3%) 이었고 IRB심의를 받지 않은 경우 중, 연구 대상자 개인동의를 받은 논문은 4,679편(67.9%), 기관의 동의를 얻은 연구가 102편(1.5%), 윤리적 측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는 연구가 979편(14.2%)이었다.

시기별 변화를 보면 IRB를 통과한 경우 2001년에서 2005년까지 7편(0.3%), 2006년에서 2010년까지 150편(6.9%)이었다. 연구 대상자 개

**Table 2.** Research Participants

(N=6,890)

Variables	Categories	Total	1970-1980	1981-1985	1986-1990	1991-1995	1996-2000	2001-2005	2006-2010
		n (%)	n (%)	n (%)	n (%)	n (%)	n (%)	n (%)	n (%)
Healthy person	0-toddler	45 (0.6)	4 (2.4)	2 (2.9)	2 (0.4)	3 (0.6)	3 (0.2)	11 (0.6)	20 (0.9)
	Preschooler	18 (0.3)	0 (0.0)	0 (0.0)	1 (0.2)	4 (0.8)	2 (0.1)	5 (0.2)	6 (0.3)
	Schooler	164 (2.4)	3 (1.8)	2 (2.9)	15 (3.3)	8 (1.6)	28 (1.9)	46 (2.3)	62 (2.9)
	Adolescents	470 (6.8)	5 (3.0)	0 (0.0)	35 (7.6)	9 (1.8)	61 (4.1)	167 (8.2)	193 (8.9)
	Early adults	1074 (15.6)	20 (11.9)	8 (11.6)	97 (21.1)	78 (15.4)	234 (15.6)	310 (15.3)	327 (15.1)
	Middle age people	294 (4.3)	4 (2.4)	0 (0.0)	5 (1.1)	4 (0.8)	66 (4.4)	102 (5.0)	113 (5.2)
	Elders	400 (5.8)	10 (5.9)	6 (8.7)	5 (1.1)	17 (3.4)	76 (5.1)	118 (5.8)	168 (7.8)
	Subtotal	2,465 (35.8)	46 (27.4)	18 (26.1)	160 (34.8)	123 (24.4)	470 (31.4)	759 (37.4)	889 (41.1)
Patient	0-toddler	58 (0.8)	0 (0.0)	2 (2.9)	0 (0.0)	1 (0.2)	16 (1.1)	21 (1.0)	18 (0.8)
	Preschooler	25 (0.4)	1 (0.6)	0 (0.0)	0 (0.0)	1 (0.2)	9 (0.6)	7 (0.3)	7 (0.3)
	Schooler	47 (0.7)	1 (0.6)	0 (0.0)	2 (0.4)	6 (1.2)	11 (0.7)	11 (0.6)	16 (0.7)
	Adolescents	21 (0.3)	2 (1.2)	0 (0.0)	0 (0.0)	4 (0.8)	4 (0.3)	3 (0.2)	8 (0.4)
	Early adults	1216 (17.6)	41 (24.4)	13 (18.8)	61 (13.3)	116 (22.9)	265 (17.7)	358 (17.7)	362 (16.7)
	Middle age people	122 (1.8)	1 (0.6)	4 (5.8)	2 (0.4)	12 (2.4)	15 (1.0)	38 (1.9)	50 (2.3)
	Elders	139 (2.0)	0 (0.0)	0 (0.0)	0 (0.0)	3 (0.6)	34 (2.3)	39 (1.9)	63 (2.9)
	Subtotal	1,628 (23.6)	46 (27.4)	19 (27.5)	65 (14.1)	143 (28.3)	354 (23.7)	477 (23.6)	524 (24.1)
Caregiver	511 (7.4)	8 (4.7)	6 (8.7)	19 (4.2)	37 (7.3)	144 (9.6)	140 (6.9)	157 (7.2)	
Healthcare provider	1307 (19.0)	42 (25.0)	15 (21.7)	150 (32.6)	95 (18.8)	243 (16.2)	349 (17.3)	413 (19.1)	
Articles and instruments	844 (12.2)	23 (13.7)	11 (16.0)	52 (11.3)	84 (16.6)	256 (17.1)	271 (13.4)	147 (6.8)	
Organizations	88 (1.3)	3 (1.8)	0 (0.0)	13 (2.8)	19 (3.8)	20 (1.4)	16 (0.8)	17 (0.8)	
Rats, cells and microorganisms	47 (0.7)	0 (0.0)	0 (0.0)	1 (0.2)	4 (0.8)	9 (0.6)	13 (0.6)	20 (0.9)	
Total	6,890 (100.0)	168 (100.0)	69 (100.0)	460 (100.0)	505 (100.0)	1,496 (100.0)	2,025 (100.0)	2,167 (100.0)	

**Table 3.** Data Collection Methods

(N=6,890)

Methods	Total	1970-1980	1981-1985	1986-1990	1991-1995	1996-2000	2001-2005	2006-2010
	n (%)	n (%)	n (%)	n (%)	n (%)	n (%)	n (%)	n (%)
Questionnaire	4,641 (67.4)	92 (54.8)	45 (65.3)	310 (67.4)	281 (55.6)	958 (64.0)	1379 (68.1)	1576 (72.7)
Interview	664 (9.6)	23 (13.7)	3 (4.3)	33 (7.2)	72 (14.3)	171 (11.5)	179 (8.8)	183 (8.4)
Medical records	117 (1.7)	8 (4.8)	3 (4.3)	3 (0.7)	13 (2.6)	26 (1.7)	26 (1.3)	38 (1.8)
Observation	211 (3.1)	10 (5.9)	4 (5.8)	8 (1.7)	25 (4.9)	44 (2.9)	66 (3.3)	54 (2.5)
Self-report	65 (0.9)	2 (1.2)	0 (0.0)	4 (0.9)	5 (1.0)	11 (0.8)	17 (0.8)	26 (1.2)
Physiological measures	325 (4.7)	11 (6.5)	4 (5.8)	22 (4.8)	24 (4.8)	60 (4.0)	94 (4.7)	110 (5.1)
Delphi-method	6 (0.1)	0 (0.0)	0 (0.0)	2 (0.4)	0 (0.0)	0 (0.0)	1 (0.1)	3 (0.1)
Q-methodology	26 (0.4)	0 (0.0)	0 (0.0)	0 (0.0)	1 (0.2)	4 (0.3)	17 (0.8)	4 (0.2)
Bacterial culture	34 (0.5)	1 (0.6)	0 (0.0)	0 (0.0)	1 (0.2)	5 (0.3)	12 (0.6)	15 (0.7)
Literature	612 (8.9)	13 (7.7)	10 (14.5)	18 (3.9)	61 (12.1)	177 (11.9)	198 (9.8)	135 (6.2)
Statistical data	162 (2.3)	4 (2.4)	0 (0.0)	58 (12.6)	19 (3.7)	36 (2.4)	30 (1.5)	15 (0.7)
Internet	11 (0.2)	0 (0.0)	0 (0.0)	0 (0.0)	0 (0.0)	2 (0.1)	3 (0.1)	6 (0.3)
Others	16 (0.2)	4 (2.4)	0 (0.0)	2 (0.4)	3 (0.6)	2 (0.1)	3 (0.1)	2 (0.1)
Total	6,890 (100.0)	168 (100.0)	69 (100.0)	460 (100.0)	505 (100.0)	1,496 (100.0)	2,025 (100.0)	2,167 (100.0)

인동의를 받은 연구는 1991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 기간 중에 윤리적 측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기관의 동의를 얻은 연구는 2001년 이후부터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7. 실험 연구에서 간호중재의 종류**

실험 연구에서 간호중재의 종류를 분석한 결과 실험 연구논문 총 1,422편 중 간호기술영역에 속하는 중재를 적용한 연구가 761편

(53.5%)으로 과반수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은 건강교육영역 270편 (19.0%), 대체요법영역 193편(13.6%) 순으로 나타났다.

시기별로 보면 간호기술영역에 속하는 중재를 적용한 연구가 199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건강교육이 1991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대체요법은 1986년 이후부터 2000년까지 증가하였다(Table 4).

## 8. 실험 연구의 종속변수 종류

실험 연구에서 종속변수를 중복을 허용하여 분석한 결과 Table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지식·태도·행동영역을 종속변수로 이용한 논문이 696편(39.8%)으로 가장 많았고, 임상결과 영역에 속하는 종속변수를 이용한 논문이 531편(30.4%), 정서 영역 367편(21.0%), 인지 영역 77편(4.4%), 기능 영역 47편(2.7%) 순으로 나타났다.

시기별로 보면 지식, 태도, 행동 영역과 임상결과 영역을 종속변수로 이용한 연구는 연도별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9. 주요어

국내 연구에서 주요어를 논문에 사용한 것은 1986년 대한간호학회지에서 처음으로 시작하였으며, 이후 성인간호학회지 1992년,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994년,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991년, 정신간호학회지 1992년, 기본간호학회지 1994년, 간호행정학회지와 아동간호학회지 1995년, 기초간호자연과학회지 1999년이었다. 본 연구에서 국내 간호연구에서 사용한 주요어를 빈도에 따라 상위 10순위까지 분석한 결과 10순위에 포함되어있는 주요어는 노인, 간호, 우울, 스트레스, 여성, 간호사, 정신, 삶의 질, 청소년, 운동이었다. 시기별로 보면 2000년 이전에는 간호, 2001-2005년, 2006-2010년에 각각 노인이 주요어 1순위를 나타냈다.

## 논 의

본 연구는 대한간호학회지와 회원 학회지에 1970년부터 2010년까지 게재된 논문들을 분석하여 지난 40년 동안의 한국간호연구의

Table 4. Types of Nursing Intervention

(N=1,422)

Variables	Total	1970-1980	1981-1985	1986-1990	1991-1995	1996-2000	2001-2005	2006-2010
	n (%)	n (%)	n (%)	n (%)	n (%)	n (%)	n (%)	n (%)
Nursing skills	761 (53.5)	7 (30.4)	6 (35.3)	8 (20.5)	34 (36.5)	118 (45.4)	240 (53.8)	348 (64.0)
Health education	270 (19.0)	10 (43.5)	8 (47.0)	14 (35.9)	26 (28.0)	54 (20.8)	90 (20.2)	68 (12.5)
Nursing administration	28 (1.9)	0 (0.0)	0 (0.0)	0 (0.0)	3 (3.2)	10 (3.8)	2 (0.4)	13 (2.4)
Psychosocial support	152 (10.7)	4 (17.4)	2 (11.8)	9 (23.1)	13 (14.0)	28 (10.8)	41 (9.2)	55 (10.1)
Psycho-education	5 (0.4)	0 (0.0)	0 (0.0)	1 (2.6)	0 (0.0)	4 (1.5)	0 (0.0)	0 (0.0)
Alternative therapy	193 (13.6)	2 (8.7)	1 (5.9)	7 (17.9)	17 (18.3)	45 (17.3)	64 (14.4)	57 (10.5)
Others	13 (0.9)	0 (0.0)	0 (0.0)	0 (0.0)	0 (0.0)	1 (0.4)	9 (2.0)	3 (0.5)
Total	1,422 (100.0)	23 (100.0)	17 (100.0)	39 (100.0)	93 (100.0)	260 (100.0)	446 (100.0)	544 (100.0)

Table 5. Types of Dependent Variables

(N=1,747)

Dependent variables	Total	1970-1980	1981-1985	1986-1990	1991-1995	1996-2000	2001-2005	2006-2010
	n (%)	n (%)	n (%)	n (%)	n (%)	n (%)	n (%)	n (%)
Clinical endpoints	531 (30.4)	14 (34.1)	7 (29.2)	14 (26.4)	32 (28.6)	82 (25.9)	141 (25.7)	241 (37.0)
Functional status	47 (2.7)	0 (0.0)	0 (0.0)	0 (0.0)	0 (0.0)	7 (2.2)	19 (3.5)	21 (3.2)
Perceptual outcomes	77 (4.4)	2 (4.9)	2 (8.3)	6 (11.3)	4 (3.6)	17 (5.4)	21 (3.8)	25 (3.8)
Financial outcomes	8 (0.5)	0 (0.0)	0 (0.0)	0 (0.0)	0 (0.0)	2 (0.6)	2 (0.4)	4 (0.6)
Knowledge, attitude, behavioral outcomes	696 (39.8)	19 (46.4)	10 (41.7)	17 (32.1)	46 (41.1)	139 (43.8)	219 (39.9)	246 (37.7)
Emotional outcomes	367 (21.0)	5 (12.2)	5 (20.8)	13 (24.5)	26 (23.2)	61 (19.3)	144 (26.3)	113 (17.4)
Others	21 (1.2)	1 (2.4)	0 (0.0)	3 (5.7)	4 (3.5)	9 (2.8)	2 (0.4)	2 (0.3)
Total	1,747 (100.0)	41 (100.0)	24 (100.0)	53 (100.0)	112 (100.0)	317 (100.0)	548 (100.0)	652 (100.0)

All dependent variables of every experimental studies were reflected.

동향을 파악하였다.

대한간호학회가 1970년 창간 이후부터 1989년 성인간호학회와 지역사회간호학회가 발간되기 이전까지는 국내에서 유일한 간호학 전문 학술지로 존재했고, 본 연구 분석 대상 논문 6,890편 중에서도 대한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이 1,837편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다. 학회지 종류도 1988년까지 1종이던 간호학회가 90년대에는 8개로 늘어났고, 이후 2001년부터 2010년까지는 9개의 학술지에 4,192편의 논문이 게재 되어 전체 분석대상논문의 66.3%를 차지하였다.

1970년에서 1980년의 논문 수가 168편에서 2006년에서 2010년에 2,167편으로 약 13배 증가하여 한국간호연구의 양적인 팽창을 보여주고 있다. 2000년 이후 2010년까지 10년간의 논문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은 석박사학위 과정을 개설한 교육기관 수의 증가에 따른 교수 수의 증가, 학위취득자의 증가로 연구활동을 하는 학회 회원 수의 증가 및 교수업적 평가제도 시행에 따른 교수들의 연구활동이 활발해진 것 등이 기여했을 것으로 설명된다. 또한, 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이 석박사 학위 취득 후 임상실무의 경험을 기반으로 연구활동이 점차적으로 활발해진 것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논문 제1저자로 교수가 대다수이었으며 연도별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대한간호학회지와 회원 학회지에 교수들의 연구가 주로 게재되며, 간호사와 공동연구를 하는 경우도 교수가 제1저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설명된다. 또한, 1996년 이후 제1저자로 대학원생이 증가한 것은 학문후속세대들의 연구논문 발표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본다.

지난 40년 동안 국내 간호연구의 연구 설계에서 연도별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실험 연구 중 유사실험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순수실험 연구의 비율이 낮았다. 그러나 조사 연구는 1991년 이후부터 50% 내외로 감소하였고, 이 기간 중 질적 연구가 20% 내외로 증가하는 변화를 보였다.

1985년에서 2010년까지 4개의 간호학술지(Nursing Research, Research in Nursing and Health, Western Journal of Nursing,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에 게재된 논문에서 매년 50%의 논문을 무작위로 선택하여 총 976편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19], 실험 연구가 1985년 16%에서 2010년에 18%로 증가하였고 질적 연구가 1985년 3%에서 2010년에는 21%로 증가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보고와 국내 연구를 비교할 때 국내 간호연구의 실험 연구는 1981-1985년 24.6%에서 2006-2010년 25.0%로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질적 연구는 1981-1985년에 한 편도 없었고 2006-2010년에 10.4%로 현저하게 증가하였지만 질적 연구의 비율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1977년에서 1986년까지 10년간 6개 간호학술지에 게재된 간호 실무연구 논문을 분석한 결과[20] 유사실험 연구가 24%, 순수실험 연

구가 6%였다고 보고한 결과와 비교하면 국내 유사실험 연구가 18.8%, 순수실험 연구가 1.2%로 국내 유사실험 연구와 순수실험 연구의 비율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영향력 지수가 가 높은 상위 10위의 간호학술지(Advances in Nursing Sci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Journal of Clinical Nursing,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Nursing Outlook, Nursing Research, Nursing Science Quarterly, Research in Nursing & Health and Western Journal of Nursing Research)에 2000년에서 2006년 사이에 게재된 2,574편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21] 양적 연구가 1,323편(51%), 질적 연구가 956편(37%), 실험 연구가 13%이며 순수실험 연구가 7%, 유사실험 연구가 6%, 비실험 연구가 39%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와 국내 연구를 비교할 때 국내 유사실험 연구와 비실험 연구의 비율이 크고 질적 연구와 순수실험 연구의 비율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선행 연구[22]에서 78개 간호학술지의 1999년도 마지막 호에 출판된 논문을 분석한 결과 질적 연구가 27%였다는 결과와 비교할 때도 국내 질적 연구의 비율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1991년 이후 양적 연구가 줄고 질적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변화는 국내 간호연구에서 질적 연구가 새로운 간호개념을 개발하고 간호현상에 대한 간호지식체 개발을 위해 정착되고 있음을 제시한다. 그러나 세계연구동향과 비교할 때 세계적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질적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내 간호연구에서 40년에 걸쳐 순수실험 연구의 비율이 극히 저조하고 유사실험 연구가 대부분인 것은 간호학의 특성상 환자를 무작위 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 설계시 대상자를 무작위 할당할 수 있는 절차를 최대한 시도하여 순수실험 연구를 시행해야 하며[10]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보여주고 간호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순수실험 연구가 더 많이 시행되어야 한다[15].

NINR (National Institute of Nursing Research)[23]은 21세기 미국의 건강문제 해결은 임상실무자, 즉 간호사들의 참여에 달려있으며 과학자들은 이들의 연구가 실무를 위한 근거(evidence base)를 제공하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간호사들이 근거를 기반으로 하여 최상의 간호를 수행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간호연구자들은 임상실무에서 환자 간호 시 직접 증재하고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연구를 설계하고 수행해야함을 강조하였다.

근거기반간호가 강조되면서 영향력 지수가 높은 상위 10위의 간호 학술지에 논문을 출판하는 초점이 연구에서 도출된 근거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학회지에 무작위배정임상연구(randomized controlled trial) 논문을 많이 게재 할 것을 제안하였다



[21]. 임상현장에서 간호사들의 실무에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순수 실험 연구를 증가시키며 연구 대상자를 무작위 배정하고 맹검(blinding)을 실시하여 무작위배정임상연구(randomized controlled trial)를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자는 건강한 일반인이 가장 많았고 2001년 이후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변화를 보였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2001년 이후부터 현저하게 증가하였고 장년기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1996년 이후부터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건강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2001년 이후 증가한 것은 청소년과 장년기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증가한 것으로 설명된다.

국내 간호연구에서 건강한 일반인 다음 순으로 환자가 23.6%로 많았으며 년도별 변화를 보이지 않은 것은 Finland에서 발행되는 Journal of Nursing Science에 1989년에서 2008년 사이에 발표된 433편의 논문에서 환자가 3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24]와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국내 연구에서 일반 건강인을 다룬 연구가 35.8%로 가장 많았고 Finland의 간호연구에서는 간호실무를 다룬 연구가 46%로 가장 많았기 때문으로 설명된다.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자가 영유아, 학령전기, 학령기 아동, caregiver, 의료서비스 제공자, 물품, 기관, 동물 등 다양하였다. 이는 회원학회지 게재논문의 연구분야 특성과 회원학회의 고유한 정체성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극히 적은 비율이지만 쥐, 세균, 미생물 등을 연구 대상으로 다룬 논문들이 1986년 이후부터 학회지에 발표되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그 수가 증가되었고 2005년부터 2010년 사이에 20편에 달했다. 이러한 결과는 기초간호과학을 전공한 간호학자들의 연구가 1998년 대한기초간호자연과학회가 창립된 이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으며, 1999년 이후 2010년까지 기초간호자연과학회지에 게재된 178편의 논문에서 동물이 성인 환자 다음으로 많은 대상으로 나타난 결과[15]가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 자료 수집 방법은 40년에 걸쳐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설문지가 가장 많았으며 생리적 측정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경향을 보였다. 자료 수집 방법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논문이 가장 많은 결과를 통해 국내 간호연구가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설문지를 이용한 자료 수집이 증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Finland에서 발행되는 Journal of Nursing Science 1989년에서 2008년에 발표된 433편의 논문에서 자료 수집 방법으로 survey가 가장 많았다는 결과[24]와 일치하였다. 간호학에서 설문지를 활용한 자료 수집이 증가 되는 이유를 간호학의 관심인 대상자의 생각, 태도, 과거사건등은 설문지를 통한 자료 수집이 유용한 것[10]으로 설명하였다.

국내 간호연구에서 지난 40년 동안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자료

수집 방법으로 생리적 측정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경향을 보인 것은 선행 연구[19]에서 연구 변수 중 생리적 변수가 1985년에 5%에서 2010년에 9%로 증가하였다는 보고를 본 연구 결과와 직접 비교하기 어렵지만, 본 연구에서 생리적 측정이 1981년에서 1985년에 5.8%, 2006년에서 2010년에 5.1%로 나타나 국내 간호연구의 생리적 측정 비율이 낮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간호중재로 간호기술 영역에 속하는 중재가 가장 많았고 종속변수로 임상적 결과가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에 비추어 생리적 측정을 이용한 자료 수집 방법을 더 증가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선행 연구[8,10]에서 자료 수집 결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생리적 측정법의 이용이 더 증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최근에 근거기반간호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으므로 근거를 제공하는데 더 객관적이며 인간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생물학적 측정을 이용한 연구가 활성화 되어야함을 강조하였다[25].

국내 간호연구의 실험 연구에서 간호중재로 간호기술 중재가 가장 많았고 199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두 번째로 건강교육이 많았고 1991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세 번째로 많은 대체요법은 1986년 이후부터 2000년까지 증가하는 변화를 보였다. 국내 연구에서 간호기술중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결과는 임상실무에서 전통적으로 실시해오던 간호기술의 방법을 변화 시키거나 새로운 간호 기술방법을 시도하고자 할 때 근거를 마련하기위해 간호연구를 수행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제시한다[16]. 이러한 경향은 연구 영역으로 간호실무가 70-80%로 25년에 걸쳐 가장 많았고[19], 연구 내용 중 간호실무가 46%로 가장 많았다는 연구 결과[24]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호주 내, 외의 국가에서 발행하는 11개 간호학술지에 호주의 간호 연구자들이 1995년에서 2000년 사이에 발표한 509편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26] 대체요법이 1.2%였다는 보고와 비교할 때 국내 간호연구의 대체요법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선행 연구[27]에서 1980년에서 2001년 사이에 발표된 국내 보완대체요법 논문 203편 중 간호학 논문이 88편으로 23%를 차지한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국내 간호연구자들이 보완대체요법 중에서 간호중재 방법으로 적용 또는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으로 설명하였다.

본 연구 결과 실험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지식, 태도, 행위가 년도별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국내에서 간호학 연구가 시작된 이래 40여년에 걸쳐 주로 사회 심리적 개념을 연구해오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임상결과가 연도별로 변화를 보이지 않고 두 번째로 많은 것은 임상현장에서 대상자들의

신체적 이상증상, 활력징후, 통증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속 변수로 임상결과를 사용하고 있음을 제시하며[16], 이는 간호연구의 목적이 임상실무에서 대상자의 간호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다.

국내 연구에서 연구 대상자 개인동의를 받은 연구는 1991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 기간 중에 윤리적 측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기관의 동의를 얻은 연구는 2001년 이후부터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 결과 기관윤리위원회(IRB)를 통과한 논문이 2.3%로 IRB를 통과한 논문수가 극히 저조함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연구 대상의 개인적인 동의가 과반수를 나타낸 것은 국내 연구에서 IRB 심의가 활성화되기 이전에는 연구 대상자의 개인적 동의를 얻는 것이 주가 되었음을 반영한다.

윤리적 측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경우도 14.2%였으며 이는 연구윤리가 강조되기 시작한 것이 2000년 이후이고 그 이전에는 윤리기준이 별도로 없었던 것으로 보며, 또한 연구자가 논문에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되었을 것으로 본다. 국내 연구에서 1991년 이후 윤리적 측면에 대해 언급이 없는 경우가 줄어든 것은 연구 대상자로부터 동의를 얻은 후 연구를 진행한 것에 대해 논문에서 명확히 제시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IRB를 통과한 논문이 1970년에서 2000년까지는 한 편도 없었고 2001년에서 2005년 사이에 7편, 2006년에서 2010년 사이에 150편으로 급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2000년 이후 연구윤리가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한국간호과학회가 중심이 되어 연구윤리를 강화하는 교육프로그램, 연구윤리 워크숍, IRB의 역할과 심사절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왔으며, 이를 통해 연구자들의 연구윤리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향상되어 나타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논문의 주요어를 통해 연구주제와 방법을 파악할 수 있다. 국내 간호연구에서 상위 10위에 포함된 주요어는 노인, 간호, 우울, 스트레스, 여성, 간호사, 정신, 삶의 질, 청소년, 운동 순이며 시기별로 보면 2000년 이전에는 간호, 2001-2005년, 2006-2010년에 각각 노인이 주요어 1순위를 보인 것은 국내 간호연구에서 이들 주제를 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본 연구 결과와 논의는 앞으로 국내 간호연구를 어떤 부분을 보완하여 수행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안내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결 론

1970년에서 2010년까지 지난 40년 동안 한국간호연구는 양적으로 크게 팽창하였으며 내용면에서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은 것 과

변화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은 것은 연구 설계에서 유사실험 연구가 대부분이고 순수실험 연구의 비율이 낮은 것이며 연구 대상자는 건강한 일반인 다음으로 환자가 많은 것, 자료 수집 방법으로 설문지가 가장 많으며 생리적측정의 비율이 매우 낮은 것, 실험 연구의 종속변수로 지식, 태도, 행동과 임상적 결과가 많은 것이다.

변화를 보인 것은 조사 연구가 1991년 이후부터 50% 내외로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비실험 연구와 양적 연구가 감소하였으며 이 기간 중 질적 연구가 20% 내외로 증가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건강한 일반인이 2001년 이후로 증가하는 경향이였으며 인간 이외의 쥐, 세균, 미생물이 1991년 이후 매우 낮은 비율로 나타났고 자료 수집 방법으로 인터넷이 1996년 이후 극히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실험 연구의 간호중재로 간호기술 중재가 가장 많고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두 번째로 많은 건강교육은 1991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이었고, 세 번째로 많은 대체요법은 1986년 이후부터 2000년까지 증가하였다. 연구의 윤리적 측면에 대한 고려는 기관윤리위원회(IRB)를 통과한 논문이 2000년 이전까지 한 편도 없었으나 2001년 이후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최근 근거기반간호가 강조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국내 간호학 연구에서 간호중재개발을 위한 순수실험 연구가 활성화 되어야하고 중재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 할 수 있는 생리적 측정용 더 증가시켜야한다. 또한, 새로운 간호개념을 개발하고 간호현상에 대한 간호지식체 개발을 위해 질적 연구를 더 증가 시킬 것을 제안한다.

## REFERENCES

1. McEwen M. Philosophy, science, and nursing. In: McEwen M, Wills E, editors. *Theoretical basis for nursing*. 2nd ed. Philadelphia, PA: Lippincott Williams and Wilkins; 2007. p. 3-22.
2. Lee HK, Yang YH, Gu MO, Eun Y. *Introduction to nursing research*. 4th ed. Seoul: Hyunmoonsa; 2009.
3. Choi KS, Song MS, Hwang AR, Kim KH, Chung MS, Shin SR, et al. The trends of nursing research in th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00;30(5):1207-1218.
4. Suh YO, Park JS, Yang JH, Kim HW, Suk MH, Shin HS, et al. Analysis of research paper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07;37(6):1013-1019.
5. Shin HS, Hyun MS, Ku MO, Cho MO, Kim SY, Jeong JS, et al. Analysis of research paper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Nursing-focused on research trends, intervention studies, and level of evidence in the research.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10;40(1):139-149. <http://dx.doi.org/10.4040/jkan.2010.40.1.139>
6. Jeong IS, Kang KS, Kim KH, Kim KS, Kim WO, Byun YS, et al. The research trends in fundamental nursing: Based on the analysis of Journal

-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2001;8(2):132-146.
7. Sohng KY, Kim JI, Choi DW, Kim AK, Chaung SK, Kim K, et al. Research trends i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 Nursing*: Based on analysis of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 Nursing* from 2001 to 2007.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2008;15(3):262-273.
  8. Suh MJ, Kim SS, Song MS, Yee MS, Oh EG, Shin KR, et al. An analysis on the contents and the trend of nursing research published i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1989-2000).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2001;13(4):571-580.
  9. Park YH, Lee YW, Kim OS, Cho MO. The trends of nursing research i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2008;20(1):176-186.
  10. Kim YK, Hwang SK, Kim IJ, Kim JS, Oh HY, Lee JK, et al. Analysis of quantitative research published by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1989-2011).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012;24(1):85-97.
  11. Lee KJ. Analysis of nursing research i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001;10(4):451-462.
  12. Kim JI, Park SM, Park HS, Chung CW, Ahn SH. Analysis of published papers and their keywords in the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003-2006).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007;13(1):51-59.
  13. Lee IS, Kim YN, Choi KW, Chin YR. A trend of research in community health nursing. *Journal of Korean Community Nursing*. 2001;12(1):288-298.
  14. Kim JS, Lim JY, Kwon IS, Kim TI, Park HR, Ahn HY, et al. Analysis of research trends in paper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2005-2009).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2011;17(2):100-110.  
<http://dx.doi.org/10.4094/jkachn.2011.17.2.100>
  15. Lee KE, Park YR, Cho KJ, Park MJ. Research trends in the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 Based on analysis of the research paper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 from 1999 to 2010. *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 2011;13(2):81-93.
  16. Choe MA, Jeong JS, Lim KC, Kim JH, Kim KS, Kwon JS, et al. Research trend of studies published in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1995-2008.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2010;16(2):95-105.
  17. Lee EO, Lim NY, Park HA, Lee IS, Kim JI, Bae JI, et al. *Nursing research and statistical analysis*. 4th ed. Paju: Soomoonsa; 2009.
  18. Erikson EH. *Identity and the life cycle: Selected papers*. New York, NY: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1959.
  19. Yarcheski A, Mahon NE, Yarcheski TJ. A descriptive study of research published in scientific nursing journals from 1985 to 2010.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2012;49(9):1112-1121.  
<http://dx.doi.org/10.1016/j.ijnurstu.2012.03.004>
  20. Moody LE, Wilson ME, Smyth K, Schwartz R, Tittle M, Van Cott ML. Analysis of a decade of nursing practice research: 1977-1986. *Nursing Research*. 1988;37(6):374-379.
  21. Mantzoukas S. The research evidence published in high impact nursing journals between 2000 and 2006: A quantitative content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2009;46(4):479-489.  
<http://dx.doi.org/10.1016/j.ijnurstu.2008.12.016>
  22. Anderson E, McDonald DD, Mikky I, Brewer T, Kosciwowski C, Lacoursiere S, et al. Health care implications and space allocation of research published in nursing journals. *Nursing Outlook*. 2003;51(2):70-83.
  23. National Institute of Nursing Research. *Bringing science to life: NINR strategic plan* [Internet]. Bethesda, MD: Author; 2011 [cited 2011 November 13]. Available from:  
<https://www.ninr.nih.gov/sites/www.ninr.nih.gov/files/ninr-strategic-plan-2011.pdf>
  24. Vehvilainen-Julkunen K, Saarti J. The publication culture of nursing science in Finland: Analysis of research article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Nursing Science* from 1989 to 2008. *International Journal of Caring Sciences*. 2012;5(2):105-111.
  25. Choe MA. Perspectives on bionursing science.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2012;9(2):61-70.
  26. Borbasi S, Hawes C, Wilkes L, Stewart M, May D. Measuring the outputs of Australian nursing research published 1995-2000.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002;38(5):489-497.
  27. Oh K, Kim KS, Kwon SH, Park JW. Research trend of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06;36(5):721-731.